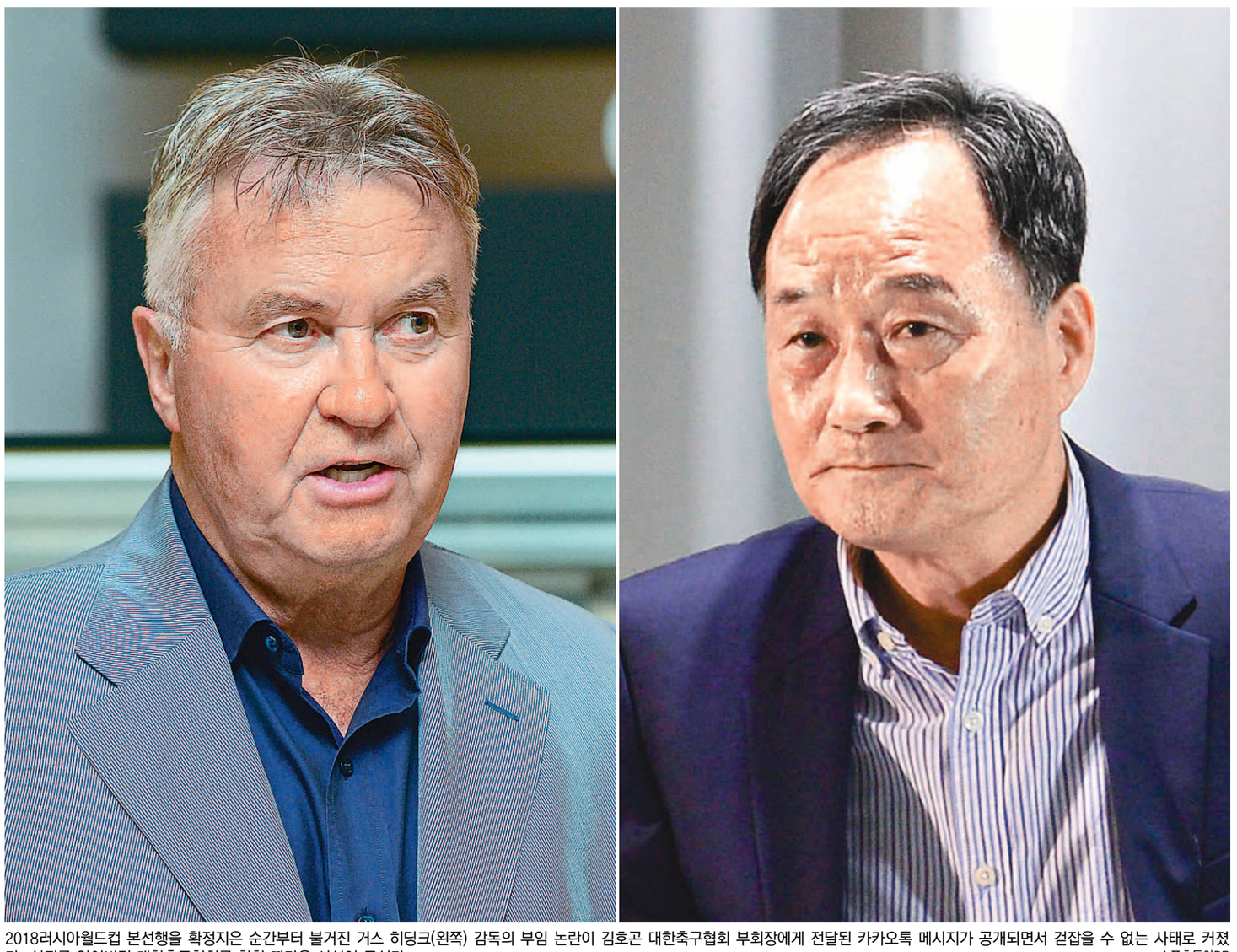
'묻지마' 제안도, '모르쇠' 협회도 한국축구에 도움 안돼

히딩크·축구협, 진실을 말해 봐!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순간부터 불거진 거스 히딩크(왼쪽) 감독의 부임 논란이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게 전달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커졌다. 신뢰를 잃어버린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무섭다. 스포츠동아DB



취재파일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부적절한 시점에 행해진 히딩크측 기자회견
노제호 총장 카톡의 진의, 반드시 밝혀져야

축구협도 히딩크의 메시지 내부 공유 했어야
베테랑 코치 영입·전력 분석에 대한 조언 등
논쟁 보다 히딩크 활용 방안 고민이 더 필요

2002한일월드컵이 끝날 무렵, 한국축구의 관심은 온통 거스 히딩크 감독의 재계약 여부였다. 월드컵 1승과 16강이 지상과제였던 한국이 꿈에도 상상 못했던 4강에 오르자 히딩크에게 한 번 더 지휘봉을 맡기려 했다.

전국은 이미 히딩크 광풍에 휩싸였다. 뭐를 해도 히딩크를 내세우면 가능한 시절이었다. 팬들도 당연히 히딩크를 강력하게 원했다.

그런데 히딩크를 가까이에서 접하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의 바람이 이뤄질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이미 4강을 이룬 히딩크 입장에서 한 번 더 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뉘앙스였다.

결국 히딩크는 자신의 고국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감독으로 갔다.

히딩크는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며 떠났다. 아울러 "2004년 올림픽과 2006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대표팀이 재정비될 것이다. 제안을 받는다면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도 했다.

히딩크의 가치를 잘 아는 축구협회는 어쨌든 끈을 놓고 싶지 않았고, 그 때 나온 아이디어가 기술고문이었다. 그 해 9월 히딩크와 2년간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아인트호벤과의 계약이 끝나는 2004년 6월 한국대표팀 사령탑으로 영입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가지는 것도 포함됐다. 기술고문의 역할은 대표팀 운영 조언, 연간 3~4회 대표팀 경기 참관, 코치 강습회 주재 등이다. 히딩크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축구가 발전하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문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 역할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름은 그럴싸해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아마도 축구협회는 2006년 독일월드컵 지휘봉을 히딩크에게 맡기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고문자리를 맡겼을지 모르나, 모든 건 '희망고문'으로 끝이 났다.

15년이 흐른 2017년 9월 14일, 히딩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급작스럽게 이뤄진 자리였다. 내용은 간단하다. "한국축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축구협회에서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한국축구를 위해 조언을 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15년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전혀 특별할 게 없다. 히딩크와 한국축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특수 관계이기에 언제든 조언이 가능하다.

눈에 띄는 건 현시점에 대표팀 감독은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가 의아스럽다. 한국축구를 위해 조언해주겠다는 뻔한 내용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면 아이러니다. 감독 맡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할 요량이었다면 더욱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술고문을 맡겠다면 최소한 예전의 기술적인 조언이 무엇이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아울러 지금 한국축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언급했어야했다. 그랬다면 기자회견의 취지와도 맞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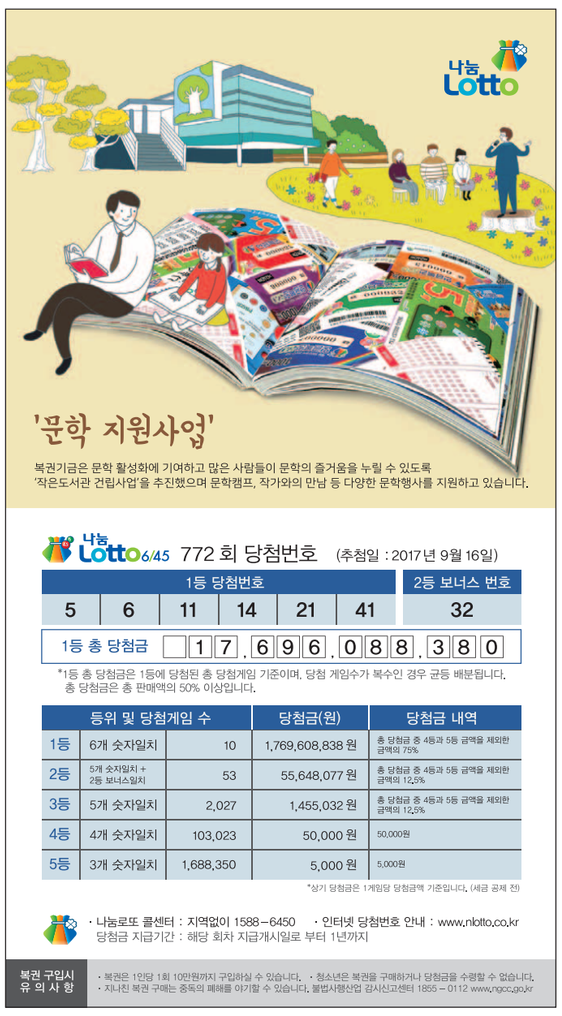
기자회견 이후 공개된 노제호 거스히딩크재단 사무총장의 카톡 내용의 진의는 꼭 확인해야한다. 한국인 감독이 2경기 임시감독을 맡아 본선에 오르면 히딩크가 맡을 의향이 있다는, 그리고 히딩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감독은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오만 가득한 내용이 설마 '한국축구의 영웅'이 그랬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축구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히딩크의 입을 통해 확인할 필요는 있다.

축구협회도 할 말은 없다. 김호곤 부회장이 기술위원장이 되기 전인 6월 19일 노제호 총장한테 히딩크의 의향이 든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면, 히딩크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조직내부에서 공유했어야 했다.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혹시 지금이라도 논란이 될만한 사항이 더 있다면 모두 털고 가야한다. 그래야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자. 히딩크도 한국축구의 자산이다. 이왕 히딩크가 적극적인 조언을 다시 한번 언급한 마당이라면 축구협회는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그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해야한다. 자문 가능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 자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히딩크 만큼 러시아를 잘 아는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브라질월드컵 때 곤란을 겪었던 훈련 캠프지 선정에 조언을 구하고, 대표팀의 약점인 국가대표팀의 경험을 커버해줄 수 있는 베테랑 코치 영입이나 전력분석관, 체력담당관 등에 대한 조언도 가능하다. 히딩크 정도의 인맥이라면 우리 입맛에 맞는 코치를 구할 수도 있다.

12월 1일 조편성 이후 상대팀 전력분석에도 히딩크의 능력은 십분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히딩크 이외에도 아드보카트, 핌 베어벡 등 한국축구와 인연이 있는 네트워크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마침 다음달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국과 러시아의 평가전에 히딩크가 온다고 한다. 러시아월드컵 준비의 첫 걸음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나눔 Lotto 6/45 772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7년 9월 16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5	6	11	14	21	41	32

1등 총 당첨금 ₩17,696,088,380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0	1,769,608,838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53	55,648,077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027	1,455,032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03,023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688,350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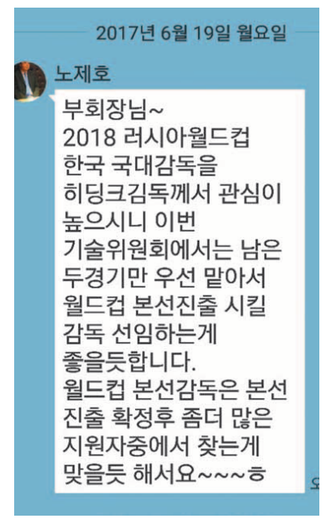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 www.ngcc.go.kr

문자 한통에 바보된 축구협

히딩크측, 절차 무시한 여론몰이식 접근 잘못
메시지 받은 사실 번복한 축구협 대응도 미숙
러 평가전때 양측의 대화 투명하게 공개해야

모든 논란의 시발점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한 통이었다. 거스 히딩크(71·네덜란드) 감독의 국내 대리인(거스히딩크재단 노제호 사무총장)은 6월 19일 대한축구협회 김호곤(66) 부회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부회장님~2018러시아월드컵 한국 국대(국가대표팀) 감독을 히딩크 감독께서 관심이 높으시니 이번 기술위원회에서는 남은 2경기만 우선 맡아서 월드컵 본선 시킬 감독 선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월드컵 본선 감독은 본선진출 확정 후 좀더 많은 지원자 중에서 찾는 게 맞을 듯 해서요~~~ㅎ"



히딩크 측근으로 알려진 노제호 거스히딩크재단 사무총장이 6월 19일 김호곤 부회장에게 보낸 모바일메신저 전문. 이 문자를 통해 한국축구와 축구협회의 맨 얼굴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일각에선 노 총장이 문자를 보낸 시점에 협회 기술위원회가 울리 슈틸리케(63·독일) 전 감독의 후임을 물색하는 과정에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한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기술위원장은 물론, 기술위원들도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 부회장은 차기감독 후보로 축구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전임 기술위원장 이용수(58) 부회장이 슈틸리케 감독과 동반사퇴를 발표한 것은 6월 15일, 협회 정몽규(55) 회장이 김 부회장에 기술위원장을 맡긴 것은 6월 26일이었다. 새 기술위원회의 출범을 알린 축구협회의 공식발표도 이 때 나왔다. 히딩크 측은 대표팀 사령탑 선임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결정권자도 아닌 김 부회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접촉이라고 주장한다.

이후에도 노 총장은 2통의 문자를 더 보냈다. 물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양 측의 전화통화는 1차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김 부회장은 9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자택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노 총장의 전화를 받았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수차례 문자, 전화통화'의 진실은 일방적인 메시지 3통, 1차례 전화연결이 전부다. 여기서 시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화통화는 '히딩크 논란'이 들불처럼 번진 뒤였다. 한 방송채널을 통해 나온 '히딩크, 한국대표팀 부임 희망'보도는 대표팀 신태용(47) 감독이 9월 6일 타슈켄트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 직전에 나왔다.

먼저 여론몰이를 하고 나중에 전화를 한 것은 제대로 된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ㅎ'까지 담긴 문자를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느 조직도 이런 종류의 메시지로 제안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최소한 이메일로 진지한 양식의 서류를 보낸 뒤 상대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다.

예의도 없었다. 제 아무리 히딩크 감독이지만 '본선진출 확정시'에만 사령탑을 맡겠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실제로 노 총장은 최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어떻게 (히딩크)감독님이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으실 수 있겠냐"고 했다.

그렇다면 한 번 되묻고 싶다. 히딩크 감독이기 때문에 월드컵 지역예선은 소화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말이다. '명장=월드컵 본선만'이라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했을까. 당시 우리 대표팀은 최악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한국축구를 그토록 사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면 그래서 위기에 빠진 대표팀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 직후 "내가 먼저 돕겠다"고 했어야 옳다.

문제는 또 있다. 히딩크 감독 측은 어떤 자격으로 월드컵 지역예선용 감독을 협회에 선임하라고 했을까. '히딩크 감독께서 (러시아월드컵 본선진출시)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높으시니'를 전제로 깔면 덥석 받아들여야 하는가. 더욱이 임시든, 본선까지 책임지든 대표팀 감독 선임 권한은 히딩크 감독 측에 있지 않다. 어느 나라도 특정 외국인 감독에게 이런 자격을 주지 않는다. 더구나 대리인의 문자를 보고 중요한 결정을 협회가 내려야 할까.

물론 협회의 대응도 미숙했다. 김 부회장이 "한 번도 히딩크 측과 접촉한 적 없다"고 하다가 휴대폰 문자·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입장을 번복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 애초에 "(노 총장의) 메시지가 무례한 내용이고,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대응하지 않았다. 그 후 잊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밝혔다면 훨씬 매끄럽게 일이 매듭지어질 수 있었다. 그랬다면 대중은 일찍이 내막을 알게 됐을 것이고 지금처럼 흥분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듯 한국축구는 문자 한 통으로 흔들리고 여론이 들끓어오를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그만큼 여론은 대한축구협회를 의심하고 한국대표팀의 능력을 믿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신뢰의 상실이다.

이제 일은 벌어졌고 문제수습만 남았다. 이마저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는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 명확한 사실 확인이다. 대표팀은 10월 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히딩크 감독도 현장을 찾는다. 협회 수뇌부와의 만남이 예고됐다. 이 자리에서 히딩크 감독에게 직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리인의 문자 한 통이 정말 감독이 원한 접촉방식이었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대화를 낱낱이 알리고 제발 숨기려고 하지 말자. 축구협회 신뢰회복은 이 같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